

퇴직연금에 담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DC-IRP에서 살 수 있는 10년·20년물의 가산금리와 중도환매 조건을 분리해 봅니다

9월 발행계획, 개인투자용국채규정과 퇴직연금 편입 안내를 대조해 확정된 조건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좌 처리 절차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8	연번	2026_93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8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퇴직연금 편입 허용과 만기보유 혜택을 같은 약속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상품의 가산금리는 국채 발행조건이 정하고, 계좌 이전과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규정과 금융회사 업무절차가 정합니다. 현물이전 때 만기보유가 이어지는지 공개 설명서에 한 줄로 명시해야 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예정액은 2,300억원이고, 이 가운데 DC·IRP에서 살 수 있는 것은 10년물과 20년물입니다. 만기보유 가산금리는 중도환매 때 사라지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이전·인출 처리는 별도 운영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3년·5년·10년·20년물로 나눠 발행하고, DC·IRP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발행 예정	2,300억원	전월보다 800억원 증가
만기별	3년 50억·5년 500억·10년 1,100억·20년 650억원	발행계획
DC·IRP 편입	10년물·20년물	합계 발행계획 1,750억원
가산금리	10년·20년 0.35%p, 5년 0.10%p	3년물 없음
청약	2026년 9월 9~15일	영업일 기준
개인 연간 한도	2억원	전 종목 합산

9월 발행 예정액은 2,300억원이다. 3년물 5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 DC·IRP 편입 대상인 10년·20년물의 합계 1,750억원은 발행계획일 뿐 퇴직연금 계좌에 실제 배정되는 금액은 아니다.

표면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는 10년물과 20년물 각각 0.35%포인트, 5년물 0.10%포인트이고 3년물에는 없다. 개인투자용국채규정상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연복리로 적용하지만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복리 적용을 받지 못한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금리·중도환매는 국채의 발행조건이다. 현재 규정은 2026년 2월 23일 시행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1호까지 반영돼 있다. 첨부 초안이 기준으로 삼은 최초 고시만으로 현행 규정을 설명할 수 없다.

DC·IRP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근로자나 가입자가 운용하는 제도다. 국채가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곧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도인출 사유, 계약이전 방식과 국채의 중도환매 조건을 차례로 봐야 한다.

정부 발표는 여덟 개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금융회사별 청약·배정·현물이전 업무절차와 수수료는 각 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대상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장기 원리금 흐름을 원하는 가입자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개인이 직접 편입하는 구조가 아니다.

9월 10년물과 20년물 발행계획은 1,750억원이다. 실제 퇴직연금 배정액과 가입자 수, 평균 매입액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를 가입자 노출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퇴직연금 편입 가능 종목 계획	1,750억원	10년 1,100억+20년 650억
전체 발행계획 중 비중	76.1%	1,750억÷2,300억
개인 연간 매입한도	2억원	만기 합산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발행계획은 퇴직연금 배정액이 아닙니다

10년·20년물 1,750억원 가운데 DC·IRP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2 · 중도환매하면 만기 보유 혜택이 빠집니다

가산금리와 연복리 적용은 만기보유 조건이고 중도환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 계좌 이전 때 현물 보유가 이어지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행계획과 현행 고시만으로는 금융회사 사이 계약이전 때 국채가 그대로 옮겨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04 · 퇴직연금 계좌의 세제와 국채의 별도과세를 합쳐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14% 분리과세 규정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단정할 공식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DC 또는 IRP 계좌가 10년·20년물 매입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과 중도인출 요건을 먼저 봅니다. • 계좌 이전 때 현물이전이 되는지, 환매가 필요한지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대상회사	• 청약 화면에 만기보유와 중도환매 수익 계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 계약이전·중도인출 때 현물 보유 여부와 처리기간을 설명서에 적습니다.
당국	• 판매회사 공통 설명서에 중도환매와 계좌이전 처리 원칙을 넣습니다. • 발행계획과 실제 퇴직연금 배정·보유 통계를 구분해 공개합니다.

갈림길

계좌를 옮겨도 만기보유 상태가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개된 발행계획과 고시는 금융회사 사이 퇴직연금 계약이전 때의 현물 처리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A 현물이전 허용 국채를 환매하지 않고 옮기면 만기보유 혜택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B 환매 뒤 현금이전 계좌를 옮기기 위해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공통 업무지침과 판매회사 계약이전 설명서에서 현물이전 문구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퇴직연금 적립금의 75.4%는 원리금보장형에 있다 ↗

넥서스 브리프 퇴직연금 현물이전에서 빠진 상품은 무엇인가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4건

01	2차 · 9월 발행액·만기별 배분·가산금리·청약일과 DC·IRP의 10년·20년물 편입 KDI 경제정보센터 전제,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	--

02	1차 ·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중도환매 조건과 현행 개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2.23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3	1차 · 개인 연간 매입한도 2억원과 월별 발행계획 안내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누리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절차·발행계획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4	파생 · 10년·20년물 합계와 전체 발행계획 대비 비중 $1,100\text{억원} + 650\text{억원} = 1,750\text{억원}$, $1,750\text{억원} \div 2,300\text{억원} \times 100 = 76.1\%$ · 확인 2026-09-08

추적 예정	퇴직연금 판매회사 공통 설명서와 계약이전 절차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현물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최초 고시 기준을 2026년 2월 23일 시행 현행 규정으로 교정하고, 1,750억원을 실제 퇴직연금 배정액이 아닌 발행계획 합계로 한정했습니다. 공개 순서에 따라 제93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발행계획과 법령을 분석한 것이며 정부·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퇴직연금 운용이나 세금에 대한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